듣는 강론

# 가톨릭마산

주님 공현 대축일
2023년 1월 8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 사람 알아보기 1

'삼고초려三顧草廬',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삼국지 '촉지 제갈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그의 누추한 초가집을 세 번씩이나 찾아간 데서 유래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인재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왕이 신하를 얻기 위해 세 번이나 그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를 실천하였고 가장 충실한 신하의 하나였던 제갈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온달溫達전傳」에 의하면 평강공주는 어릴 때 너무 울어서 아버지 평원왕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 뒤 커서 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 평원왕은 명문 귀족 집안 자제에게 공주를 시집을 보내려 했지만, 공주는 이를 거부하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바보 청년 온달에게 시집을 갑니다. 공주는 시어머니를 봉행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여 훌륭한 장군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입니다.

## 사람 알아보기 2

『삼국사기』「온달전」의 이야기는 그 당시나,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는 허구적인 면이 짙다고 부정하기도 합니다만,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이라 허구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일화에서 평강공주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대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면 공주 신분으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별이 되는 삶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역시도 하느님을 만나 뵙기 위한 긴 여행인 듯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죽기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가야 할 그런 여정이죠. 그 신앙의 여정에는 동방박사들에게 하늘의 큰 별이 길을 인도해 주었듯이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는 그런 신앙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학교 때나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끌어주고 함께해 주는 동기들, 선후배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제 외할아버지나 저의 어머니가 제 신앙의 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삶을 이끌어주는 훌륭한 신앙의 교우들이 저에게 별의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준, 인도해 주고 있는 그런 은인들이 있죠. 그런 신앙의 인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나도 역시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누군가에게 이런 신앙의 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떤 꼬마가 엄마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 하느님은 어디에 있어?"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엄마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엄마는 자녀에게 신앙의 별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런 데 신경 쓸 때냐?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공부나 해라." 무심코 이런 엄마의 말은 별이 아니라 헤로데 사촌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늘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을 합니까? 당신하고 옆에 있으면 참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동료가 해 줄 때, "아, 나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래. 나는 늘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힘이 나." 바로 이 분은 그 사람에게 삶에서 또 어떤 신앙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별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성당에 다닌다던데,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하는구만." 이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을 완전히 가리는 먹구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최재상** 마티아 **신부** | 창녕본당 주임

## 주일 전례

| | |
|---|---|
| 제 1 독 서 | 이사 60,1–6 |
| 화 답 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 제 2 독 서 | 에페 3,2.3ㄴ.5–6 |
| 복 음 | 마태 2,1–12 |

# 2023 교구 사제 정기인사

| 사제명 | 부임지 | 전임지 |
|---|---|---|
| 최봉원 | 원로사목자 | 총대리 겸 사무처장 |
| 이은진 | 원로사목자 | 하대동 주임 |
| 노영환 | 원로사목자 | 진영 주임 |
| 김순곤 | 진영 주임 | 양덕동 주임 겸 마산지구장 |
| 이학율 | 원로사목자 | 영성생활의 집 |
| 이재열 | 원로사목자 | 나자렛 예수 수녀회 |
| 김용민 | 요 양 | 양곡 주임 |
| 양태현 | 생림선교 주임 겸 진례 주임 | 생림선교 주임 |
| 김국진 | 대건 주임 | 봉곡동 주임 |
| 유해욱 | 나자렛 예수 수녀회 | 휴 양 |
| 이청준 | 안식년 | 기획관리국장 |
| 남영철 | 요 양 | 삼계 주임 |
| 박호철 | 양곡 주임 | 진례 주임 |
| 최재상 | 합천 주임 | 창녕 주임 |
| 여인석 | 고현 주임 겸 거제지구장 | 사목국장 |
| 이상원 | 하대동 주임 | 고현 주임 겸 거제지구장 |
| 정진국 | 양덕동 주임 겸 마산지구장 | 마산가톨릭교육관장 |
| 주용민 | 사무처장 | 안식년 |
| 이정근 | 기획관리국장 | 교구청 신축 담당 |
| 이현우 | 하청 주임 | 칠원 주임 |
| 최경식 | 사천 주임 겸 이주사목 담당 | 국내이주사목 담당 |
| 이주형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
| 전병이 | 태평동 주임 겸 이주사목 담당 | 거제지구 성지담당 |
| 서정범 | 삼천포 주임 | 병원사목(마창지구) |
| 임성진 | 서포선교 주임 | 교포사목(미국 디트로이트) |
| 최태준 | 사목국장 | 산청 주임 |

| 사제명 | 부임지 | 전임지 |
|---|---|---|
| 이 민 | 안식년 | 대건 주임 |
| 최태식 | 삼계 주임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
| 김형렬 | 안식년 | 하청 주임 |
| 이상록 | 창녕 주임 | 홍보국장 |
| 박재우 | 봉곡동 주임 | 파티마병원 담당 |
| 최종태 | 안식년 | 상평동 주임 |
| 전주홍 | 칠원 주임 | 사천 주임 |
| 오승수 | 교포사목(미국 디트로이트) | 서포선교 주임 |
| 이정림 | 안식년 | 청소년국장 |
| 김정우 | 청소년국장 | 진해장애인복지관장 |
| 신명균 | 마산가톨릭교육관장 | 태평동 주임 |
| 김호준 | 교포사목(미국 신시내티) | 유 학 |
| 정윤호 | 상평동 주임 | 호계 주임 |
| 손권종 | 지세포 성지 담당<br>(거제 성지를 지세포 성지로 명칭 변경) | 거제 주임 |
| 김현우 | 호계 주임 | 사목국 부국장 |
| 이강현 | 파티마병원 담당 | 삼천포 주임 |
| 장성근 | 사목국 부국장 | 합천 주임 |
| 이진수<br>(F.하비에르) | 산청 주임 | 양덕동 보좌 |
| 이시몬 | 거제 주임 | 사파동 1보좌 |
| 허기원 | 양덕동 보좌 | 반송 1보좌 |
| 주경환 | 군 종 | 고현 보좌 |
| 정재덕 | 사파동 1보좌 | 덕산동 보좌 |
| 박진용 | 덕산동 보좌 | 중동 보좌 |
| 심정현 | 해외유학 | 옥포 보좌 |

●**인수인계일:** 1월 10일(화) 10:00, 11:00

●**부임일:** 1월 13일(금)

## 새사제 인사발령

| 사제명 | 부임지 | 비 고 |
|---|---|---|
| 이창범 | 중동 보좌 | 구암동본당 출신 |
| 김진현 | 옥포 보좌 | 문산본당 출신 |
| 장신영 | 고현 보좌 | 옥봉동본당 출신 |

### ■초임 주임 신부 본당파견과 신앙고백

대상: 김현우 신부, 이진수(F.하비에르) 신부, 이시몬 신부

일시: 1월 10일(화) 13:30

장소: 교구청 교구장서리 집무실

직무교육: 14:00 사무처장 집무실

### ■교구청 조직 변경

2022년 12월 30일 참사회 결의에 따라 홍보국을 2023년 1월 2일부로 사무처로 통합합니다.

#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교회법에 관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신부님,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배운 적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알아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법을 전문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없기에 앞으로 가톨릭마산의 칼럼을 통해 여러분들과 교회법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혼인법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혼인 조당이다.’ ‘조당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 데 혼인이 무효가 되는 조건과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조당’이라 하지 않고, ‘혼인무효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맺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장애를 해소하든지, 관면을 받든지 해서 유효한 혼인을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효한 혼인을 지속하고 있다면 공공연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온전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모고해冒告解와 모령성체冒領聖體로 성사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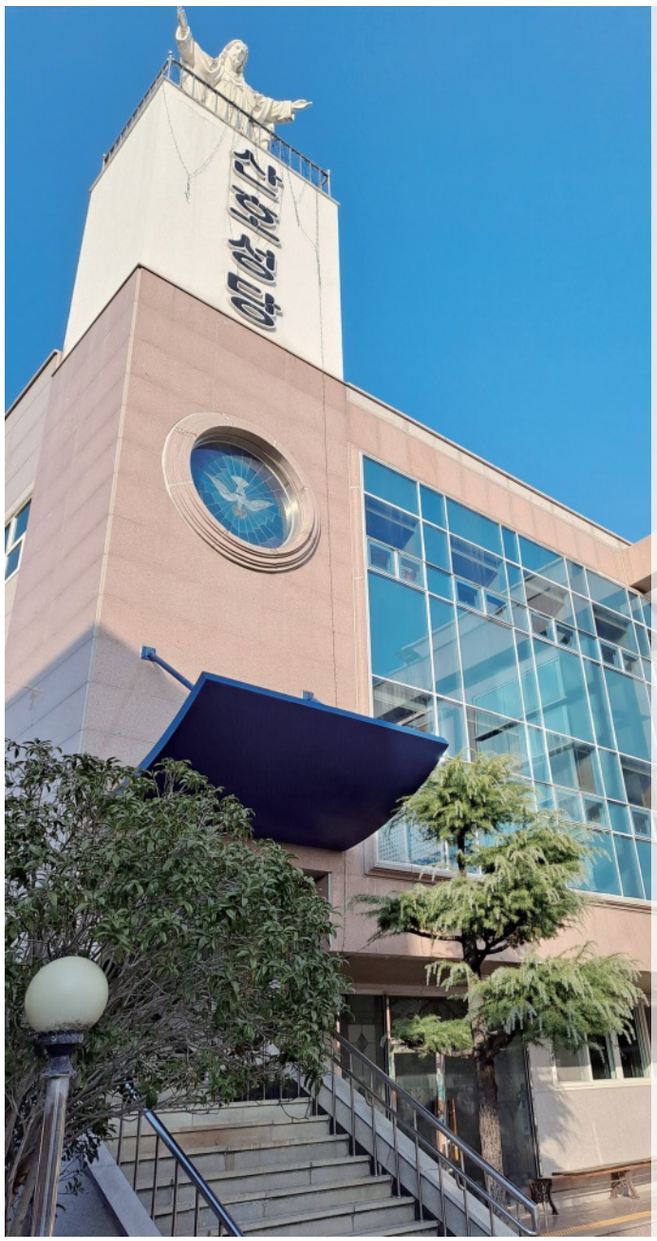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7)

그렇다면 유효한 혼인은 무엇일까요? 유효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기는 혼인을 말합니다(교회법 제1134조 참조).

혼인을 이루는 형식으로는 세 가지 경우에만 교회가 혼인의 유대를 인정합니다. 혼인을 하실 때 영세자와 영세자 사이의 **성사혼**, 영세자와 비신자 사이의 **관면혼**,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사회혼**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이 교회법의 형식으로 성사혼을 하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 사회혼만 하셨다면 교회는 두 사람의 혼인 유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비신자와 혼인할 때도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면을 주어 교회법의 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비신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혼은 혼인의 유대를 인정하지만 혼인 예식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동거는 혼인의 유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가 비신자일 때 사회혼을 하고, 나중에 신자가 된 경우에는 이미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으므로 교회혼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이 관면혼과 성사혼의 지위를 얻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혼인무효장애가 있다면 본당 신부님이나 마산교구 법원(055·249·7111)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법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음에는 혼인무효장애의 해소와 특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있는 정다운 곳 산호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대림 시기에 산호동성당을 찾는 골목길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떠오르게 한다. 작은 마당의 성모상 앞 화초에 짚으로 방한복을 만들어 씌워 겨울 채비를 해놓은 모습이 정답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다. 초라한 구유에 누울 아기예수님이 다가오신다. 별빛 따라 찾아온 목동들처럼 허리가 굽은 신자들이 띄엄띄엄 성전으로, 꾸역꾸역 모여든다. 젊은 사제는 연로한 신자들이 많은 자리를 향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고 선포한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한다. 주님의 고리에 함께 이어지면 구속이 아니라 평화라고, 함께 잡고 가야한다고 강론한다.

## 기후위기, 신자들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김용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 신부는 자연 보존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신자들도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십여 년 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남극에서 실험하는 것을 통해 지구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했단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가 선포되고, 그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일회용 물품을 쓰지 않도록 하고, “나를 따르라(요한 21,19)”가 적힌 장바구니를 신자들에게 배부하여 사용토록 한다. 작은 성당이지만 우리농 매장도 있어 좋은 몫을 하고 있다. 대림 특강에는 환경운동가를 초빙하여 ‘슬기로운 기후 시민생활’을 주제로 신자들의 의식을 깨우치길 바랐다.

청년이 귀한 본당에서 청년이 한둘 눈에 보여 지난해 3월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 성경말씀을 나누고 생활나누기로 공감대를 만들었다. 다섯 명 남짓이지만 이제 그들은 스스로 모임을 이어가려 하고 주일 저녁미사에서 전례도 맡으려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적은 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이곳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눈에 넣고 알뜰살뜰 보살핀다.

## 역사를 쌓아올린 사제들과 신자들

손재곤 요아킴 사목회장은 10년 전 성당 리모델링 시에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설립 40주년에는 본당사 편찬위원장도 맡았다. 그전에 이 성당은 너무나도 허술한 건물외양으로 인해 부끄럽고, 신자들에게는 괜한 자격지심까지 생기게 했단다. 사제와 신자들이 성전과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 똘똘 뭉쳤다. 세대 당 평균 신립기금을 정하고 호소했다. 9개 본당을 찾아 후원금을 모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물건 판매를 해서 건축비에 보태려는 끝없는 ‘본당사랑’이 이어졌다. 모두의 사랑으로 이룬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으로 오르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연로한 신자들의 걸음을 도왔다. 교육관에는 사제관, 수녀원, 사무실과 회합실, 주방이 제대로 갖춰졌다. 그래도 여전히 작긴 하지만, 따뜻한 울타리가 되었다. 백희선 크리스티나 부회장도 맞장구쳤다. 처음에는 주방이 없었던 터라 정화조 위에서 꿇다시피 하여 음식을 장만했던 시절이 있었단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젊을 때는

그저 기쁘고 잘 헤쳐 나갔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현재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 봉사자도 노령화되어 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모여 앉은 신자들은 때때마다 영성적으로 큰 울림을 준 사제들을 기억해 내고, 건축으로나 행사들로 동고동락했던 사제들을 그리워한다. 김용 신부는 부임하여 구역·반 편성을 새롭게 했다. 신심단체도 점검하여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신자들을 공동체 가까이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가 점령하고 있던 흔적을 씻어내려 한다.

## 천만 원 더 내기 운동

산호동성당은 2022년부터 사제와 사목위원들이 합심하여 〈천만 원 더 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일 봉헌금 천 원 더 내기'와 '월 교무금 만 원 더 올려 내기'를 합친 '천만 원'이다. 노령층이 워낙 많아서 천 원, 만 원도 조심스런 제안이지만 실행에 옮겨 보았다. 모든 신자가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으로 보태어서 긍정적인 성과에 이르렀다. 2023년 새해에도 이 운동은 이어진다. 더 탄력을 받아 더 많은 신자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희망한다.

본래 예산이 빠듯한 본당이라 무슨 일이라도 하려면 신자들에게 찬조를 요청했고, 수월하게 빨랑카를 모아 순조롭게 일을 치렀다. 찬조문화가 밴 '우리 성당'이라고 사목회장이 자랑한다. 돈뿐만 아니라 기도할 일이 생기면 전 신자의 기도가 모인다고 부회장도 자랑한다. 성당에 일이 있어 연락을 받으면, 같이 나와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함께 자리한 자매도 칭찬하고 자랑한다. 특히 사목위원 비율이 7:3으로 여성들이 훨씬 많아 실행력이 매우 빠르다고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은다.

## 용트림은 아니라도

마스크로 입을 막은 동안 만남과 나눔도 막혀 있었던 만큼 지난해는 서서히 분위기를 깨우기로 했다. 6월 본당의 날에는 모처럼 점심식사를 나누었고, 노래자랑도 했다. 7월 주일학교는 성당 내에서 여름캠프도 즐겁게 치렀다. 8월 사목위원 연수도 야외로 나가서 힘을 북돋우었다. 9월에는 견진성사가 있었고, 용트림 같은 움직임은 아니라도 조금씩 예전 같은 공동체로 되돌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본당,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나가자고 사제는 희망한다. 새해에는 어떻게 4,50대 신자들을 성당으로 모시고 올 것인가? 란 과제를 안고 있다고도 한다. 자신도 마산사람이라는 김용 신부는 마산사람들 특유의 고집을 안단다. 그 고집이 이 본당을 이끈 원동력임을 인정하고, 이분들의 프라이드를 존중하며 기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진다.

사목위원

## 교구/본당

### 이은진 도미니코 신부 은퇴 감사미사
일시: 1월 11일(수) 18:30
장소: 하대동성당

### 전국 홍보국장회의
일시: 1월 11일(수)/ 장소: CBCK

### 전국 사회사목국장회의
일시: 1월 12일(목)/ 장소: CBCK

### 전국 청소년국장회의
일시: 1월 13일(금)/ 장소: CBCK

### 복사학교 1차-마산지구, 진주지구
일시: 1월 9일(월)~10일(화) 1박 2일

### 복사학교 2차-창원지구, 거제지구)
일시: 1월 10일(화)~11일(수)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인수인계
일시: 1월 1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 새 임지 부임
일시: 1월 13일(금)

### 주일학교 대표 교리교사 연수
일시: 1월 15일(주일) 09:00/ 장소: 교구청

## 위원회/기관/단체

###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 기 타

### 2023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 부산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일정: 매월 2주 토 10:00~16:00(중식제공)
1월 14일(토)/ 2월 11일(토)/ 3월 11일(토)/ 4월 8일(토)
문의: 010·7155·3498

###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1월 31일(화) 마감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 30대를 위한 신약통독(zoom)
일시: 3월~11월(주일) 16:00~18:00/ 수강료: 3개월 10만 원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 예수회센터 사전녹화 동영상 강좌(3월 개강)
내용:
- 어떻게 기도하고 생활할 것인가-권오면 신부
- 가톨릭 신앙과 영성 다시보기-예수회 사제 외
- 삼위일체 하느님과 영적 성장-이규성 신부
-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홍기령 교수
- 영의 식별-권오면 신부
- 가톨릭 사회교리-전주희 수사
- 신약성경과 영성생활 다시보기-임숙희 박사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남해본당 제20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홍주(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현숙(로사리아)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기식(노엘)
총무: 김수미(마리아 막달레나)
재정분과위원장: 박선영(효주아녜스)
홍보분과위원장: 박영신(요셉그레고리오)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인자(레지나)
전례분과위원장: 이경숙(에디나)
시설분과위원장: 손갑진(마티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조미옥(율리아나)
구역분과위원장: 김현숙(로사리아)-겸임
교육복음화분과위원장: 안정희(카타리나)
- 미조공소회장: 권대진(이냐시오)
- 은점공소회장: 김미래(모니카)

### 재속 맨발 가르멜회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1월~3월
장소: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회관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받은지 3년 경과, 견진성사를 받은자, 과거 냉담 신자인 경우 성사 생활 3년 이상인 자
문의: 010·7275·4375

###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1월 11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및 레크에 감각이 있는 사람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늘품직업재활센터 '늘품은견과' 설날 선물 사전 예약 판매
늘품직업재활센터는 창원시에서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사전 예약 주문 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늘품은견과 플러스: 기본세트 1박스+답례품 2통(34,000원→30,000원)/ ▶늘품은견과 선물형: 기본세트 1박스+크리스탈보자기 포장(26,000원→23,000원)/ ▶늘품은견과 실속형: 기본세트 1박스(22,000원→20,000원)
사전주문기간: 1월 18일(수)까지
문의: 055·247·5190, 010·2568·5190

### 함안안나의집 입소 안내(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대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1~4등급 자 노인 중 시설급여 대상자(3, 4등급 자는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정 세레나)

### 파랑포안나의집(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 장기요양 1~3시설등급(여자어르신)
주소: 거제시 팔랑포2길52(옥포동)
문의: 055·687·4890, 010·8526·6079

| 성령기도회 | 일 시 | 장 소 | 주 제 | 강 사 | 미사 주례 | 문 의 |
|---|---|---|---|---|---|---|
| 교 구 | 1월 9일(월) 19:00 | 중앙동성당 |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 | 010·5072·5612 |
| 청 년 | 매주 (수) 19:30 | 교구청 별관 지하 | 성령기도회 |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 | 010·6667·7809 |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해외성지순례 모집
2월 21일~25일 베트남 성지순례 5일
■국내·제주 성지순례 3일/ 4일
제주도 순례모집(6명이상 매일출발)
3월 17일~19일 수원교구 순례 3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 지란지교

김진희 세레나 시조시인/ 가톨릭문인회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를 수어지교, 난초같이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를 금란지교, 지란지교라고 한다.

친구란 무엇인가? 친할 親 옛 舊로 사전적 용어는 친하게 예전부터 사귄 사람을 뜻한다. 나에게 수어지교, 지란지교는 있을까?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눈만 뜨면 나가던 직장을 퇴임하고 보니, 갑자기 공허하고 매사 무기력한 것이 나 혼자만 덩그러니 외톨이가 된 것 같았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도 삼가고 주변의 만남에 소원한 것도 있지만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공황상태가 온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 학교 동창회는 물론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이라곤 없으니 그야말로 40여 년간 집과 직장만을 오간 것이다.

외롭고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친구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화만 오가던 코흘리개 친구가 생각났다. 우린 적어도 그동안의 공백기를 허물고 어릴 적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tv가 있는 그 친구 집에서 밤마다 연속극을 보던 일… 등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때 참 미안했다고 “밥값은 내가 낼게” 하면서 우린 웃었다. 치매가 와서 거동이 불편한 친구 어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욱 생각이 났다.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여자 친구들도 어렴풋한데 남자 동창들은 아는 사람이 있을까? 호기심 반, 기대 반의 묘한 마음에 설레기도 했다. 아, 어릴 적 우리 반 했던 그 아이, 공부 잘하던 그 학생, 생가지를 맛있게 먹던 남학생, 고무줄놀이하는 여학생들에게 와서 날쌔게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던 동네에 사는 개구쟁이, 시장에 쌀집 아들… 모두 몰라보게 변해서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리며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깨에 진 짐도 덜어내고 머리가 희끗한 나이의 아저씨들은 5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을 돌려놓으며 웃고 떠들고 모두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여고 동창 모임에서 또 연락이 왔다 그들의 단체 방에 나를 초대한 것이다. 주로 서울·경기 지역의 친구들로 여행경비를 모으는 중이란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나를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며 함께하기로 했다. 풋풋했던 여고 때의 친구들 이름을 보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고 보면, 내게도 나의 친구가 있었다. 성당에서, 직장에서 함께했던 보고 싶은 언니 친구, 그리운 엄마 친구(가끔 대모를 ‘엄마’라 부름)다. 그들은 어쩐지 남과 다르게 느껴진다. 훌쩍 떠나고 싶은 어느 날, 나의 애마는 바다로 향했다. 바다는 아늑한 고향 같고 바다를 떠올리면 마음이 설렌다. 그리고 그 바다에 가면 언니 친구들이 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린 연결되어 있었고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사람들이다. 하느님을 믿는 그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큰 위안이 된다.

새해에는 친구를 위해,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날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빌어본다.

# 판관기의 시작(판관기 1-2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순례하는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땅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서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하였을까요?

여호수아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인 판관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다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파들 간의 일치와 상호협력을 사는 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기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면, 판관기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판관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판관기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원로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시작되어 판관 삼손의 시대로 끝납니다. 사실 판관들의 시대는 사무엘로 끝나지만, 엘리와 사무엘은 판관기가 아니라 사무엘기에 등장합니다. 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는 200년이 못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가 기원전 1250년 경이라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을 거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때가 기원전 1000년 경이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판관들이 다스리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판관기 1장은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하여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는 군사적인 한계에서 기인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주변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까닭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민족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느님께 불충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주변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십니다. 이민족들의 억압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울부짖으면 하느님께서는 판관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해내시고, 평화의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판관기는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를 죄-벌-울부짖음-구원이라는 신학적인 도식을 사용하여 서술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도식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판관 2,11-19; 6,7-10; 10,6-16). 이런 독특한 서술 방식 때문에 판관기의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잘못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면 우리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대신에 자주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하느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까?

다음 순례지로 떠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라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총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 주님"(판관 4,14)을 따릅시다.